



조계종 전국사찰

4대강 반대 서명운동

조계종 환경위원회가 정부의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계종 공식기구인 환경위 성명서 발표로 조계종도 천주교에 이어 4대강 사업 반대가 공식의견이 됐다.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주경, 이하 환경위)는 3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4대강 사업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위원장 주경 스님은 "4대강 저지

야 한다"며 "현 정부는 국토의 생명력을 높고, 역사문화유산을 송두리째 훼손·파괴하는 대재앙을 부르게 된다는 것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성명서와 함께 4대강 반대를 위한 행동 계획도 발표했다. 환경위는 4월 17일 조계사에서 열리는 환경대법회 '4대강 생명살림 수록대제'를 직접 추진한다. 또 전국 사찰에서 4대강 반대 서명운동을 펼치고, 사업 절차 및 문제점을 정리한 안내책자

조계종 환경위 25일 4대강 저지 성명 4월 17일 조계사서 '4대강 수록대제'

운동에 천주교계가 적극 대응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불교계에서도 지속적인(4대강 반대) 활동을 이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봄은 사 문제 등이 있지만 더 시급한 것은 4대강 저지 운동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러 스님은 "성명서가 종회에서 채택됐어야 했지만 법정 스님의 갑작스런 입적 등으로 미뤄져 발표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환경위는 성명서에서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의 하나로 포장한 '4대강 살리기'로 국토 전체의 생태를 위협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대규모 토목공사를 강행해 살아있는 강을 도리어 죽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 "국민적 합의, 적법한 절차와 충분한 사전조사 없이 진행되는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공사는 중단

와 환경포스터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환경위는 가야산국립공원 내 골프장 건설 추진 중단활동 등 종단 내 환경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이를 위해 대구지방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공유할 계획이다. 4월 초에는 골프장 설립예정지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5월에는 자연공원 내 골프장 건설에 대한 토론회도 개최한다.

한편, 천주교는 최근 서울 시내 상당 20여 곳에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인천·광주 교구도 동참했다. 또 각 지역 교구에서는 서명운동, 만화 홍보책자 45만 부 배포, 4대강 권역 사제와 신도들이 미사를 여는 등의 대규모 저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상연 기자



국내 유일 繡 래불탱 한국불교미술사학회(회장 문명대)는 3월 20일 종로 참신동 지장암에서 '지장암 불교미술의 성격과 의의'의 주제로 지장암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지장암에서는 불교의식 및 야외법회를 할 때 절 마당에 걸어놓는 국내 유일의 수(繡) 래불화(佛佛圖)인 수아미타삼존 래불도가 공개됐다. **관련 기사 7면** 이나은 기자 · 사진제공=한국불교미술사학회

법정 스님 추모 열기 '활활'

절판 소식에 저서 가치 상승... 5재는 무각사서

3월 24일, 서울 길상사에는 이른 아침부터 추모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법정 스님의 재가 있는 날에는 길상사를 찾는 택시가 특수를 누릴 정도다.

법정 스님의 책이 품귀현상을 빚는 등 추모 열기가 식지 않는 가운데 2재가 3월 24일 서울 길상사에서 봉행됐다.

이날 길상사를 찾은 조영수(60·시도동)씨는 "스님 같은 분이 한국에 한 분이더라도 더 계신다면 정말 우리나라가 아름다워질 것 같다. 49재까지 꼭 동참해 스님 영가를 천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2재에는 길상사 前 주지 덕조 스님, 현 주지 덕현 스님 등 법정 스님의 상좌스님 등 사부대중이 함께했다.

법정 스님의 5재 장소가 길상사에서 광주 무각사로 변경됐다. 5재는 길상사 초대 주지 청학 스님이 주석하는 곳이다.

맑고향기롭게 김자경 기획실장은 "맑고향기롭게 초대 사무국장으로서 법정 스님과 오랜 시간을 함께했다"며 "법정 스님을 오랜 시간 시봉해 온 청학 스님이 직접 재를 올리고 싶다고 요청해 장소를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정 스님의 추모 열기는 사이버 공간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맑고향기롭게는 법정 스님 추모 홈페이지(www.beopjeong.net)를 개설했

다. 홈페이지에는 법정 스님의 사진, 어록 등을 누구나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스님 책이 절판된다는 소식이 3월 26일에는 인터넷 오픈마켓 옥션에서 1993년 8월 발행된 <무소유> 증보판 중고도서가 110만5000원에 낙찰되는 등 스님의 저서의 가치는 날로 올라가고 있다.

김자경 기획실장은 스님의 저서 출판과 관련해 "맑고향기롭게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출판사와 협의의 단계에 있다"며 "맑고향기롭게와 출판사 측은 스님의 유언을 따르는 것을 기본으로 의견 조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길상사는 법정 스님이 1992년부터 최근까지 수행했던 강원도 평창군 신갈 오두막을 찾아오는 추모객의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다. 길상사 관계자는 "무분별한 출입으로 원형이 흐트러지거나 유물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49재까지 출입을 막기로 했다"며 "신갈 오두막은 49재가 끝나면 유물이 뿌려질 곳이고, 법정 스님의 유품을 정리하고 파악하는데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청률조사기관 TNS에 따르면 3월 13일 불교TV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법정 스님 다비식은 1.63%(전국기준)의 시청률을 기록해 동시간대 케이블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 이상연 기자

▶14 선지식-법흥 스님 ▶4 인터뷰-도신 스님 ▶9 현장-다문화법회

조계종 184차 임시총회 6월 개최

조계종 제184차 임시총회가 6월 중으로 개최된다.

제184차 임시총회에서는 승려사유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승려법 개정안과 승려노후복지법 제정안,

신도품계와 관련한 신도법 개정안, 종단 교무금납부에 관한 법 개정안 등 지난 회기에서 이월된 총법 개정안이 대거 상정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불교방송·진흥원 화해 기류

불교방송 사장선출 등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던 대한불교진흥원과 불교방송 사이에 최근 화해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불교방송과진흥원 관계자에 의하면, 최근 불교방송 간부회의에서 한 간부가 "진흥원에 대해 공격적 입장을 거두지"고 발언한 것을 비롯

해 수년간 이어진 두 기관의 대립이 더 이상 양 측에 도움이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진흥원 신진욱 대변인은 "최근 불교방송의 분위기가 변화된 것 같다"면서 "하지만 아직 진정성이 드러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국제불교문화교류센터 부지 제공

총지종,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에 밝혀

총지종 총무원장 지성 정사가 3월 22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국제 불교문화교류센터' 건립에 약속한 부지를 제공할 뜻을 밝혔다(사진).

총지종 총무원장 취임



인사차 진행된 이날 예방에서 지성 정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불교계 선거공약으로 건 '국제불교문화교류센터'(가칭) 건립에 총지종 총지사가 위치한 역삼동 900여 평 땅을 부지로 내놓고 싶다"며 "해외포교에 각 종단의 관심이 몰리고, 범불교적인 대규모 공연장과 회의장이 부

족한 만큼 이를 적극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자승 스님은 "종단합에서도 부지 문제로 이 문제가 답보했던 것으로 안다. 종단합 부의장 스님들과 논의를 해보겠다. 종단합 이사회의의 시안건으로 제안해 달라"고 답했다.

노덕현 기자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저등 승강장치_대구 여려사 연등 저등 승강장치_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아름다운 등

※ 주름등·종등 주문 받습니다. (사찰명 인쇄)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오색공단등

영가등

종등

육바리밀 만월등(육바리밀 주름등)

팔각봉축접등

종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LED인등 LED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용학사 극락전 영구위패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모 • 열 발생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찬덕연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031) 792-6288, 794-4055 / 팩스: 031) 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